

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18, 18 세기 와 19 세기 가톨릭교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저는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그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여기는 18번째 세션, 19세기 가톨릭교입니다.

좋아요, 강의 요약의 14페이지입니다. 오, 그리고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모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 좋은 휴식을 취하고 이 수업의 논문을 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메모를 해두었으니 잊지 않고 말해주도록. 우리는 강의 계획서 14페이지에 있고, 이번 주에 이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목표를 맞췄어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옮겨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19세기의 복음주의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그 강의에서 우리가 한 것은 복음주의의 두 가지 극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회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로마 가톨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구세군의 저교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복음주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9번째 강의인 19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에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옥스포드 운동 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옥스포드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세기에 그들만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교황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 우리는 19세기의 세 가지 주요 로마 가톨릭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글썄요, 하나는 실제로 20세기에 있지만,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선 소개부터 하죠.

19세기에, 특히 유럽에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약간의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무엇이였을까요? 글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종교적 영향력을 세속 문화에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졌던 종교적 영향력, 교회가 수세기 동안 가졌던 지배적인 종교적 영향력을 교회는 더 이상 세속 문화에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당혹스러웠던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세속적 통제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세계에서 교육은 교회의 보호를 받았고, 대학은 교회와 성당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의 분리를 얻고 있으며, 교육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많은 슬픔과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꽤 많이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과학의 부상입니다. 19세기 과학의 부상은 19세기에 많은 종교인들에게 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지질학, 인류학 등을 통한 과학의 부상이죠.

그리고 특히, 물론, 다윈주의는 1859년에 등장했고, 종의 기원이 등장했고, 다윈주의는 위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자연선택에 의한 창조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위로부터의 창조, 즉 신이 창조한다고 가르쳤던 곳에서, 다윈주의가 등장하여 자연선택에 의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다윈주의만이 아니었고, 삶의 가장 큰 의문에 이제 과학이 답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삶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와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 잠깐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삶의 큰 질문에 답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삶의 철학적 문제와 삶의 질문 등을 지배하고 답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이야기에 개입하여 다른 관점에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주변화됩니다. 종교는 과학적 노력에 의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연히 오웬 킹그리치가 여기 왔을 때 그의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그는 정말 훌륭한 강의를 세 번 했고, 하버드 교수, 천체물리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주요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 과학과 종교의 매우 흥미로운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과학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평행선으로 달려야 하는 두 개의 별개의 실체는

아니지만 종교와 과학은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9세기에 종교는 19세기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일종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소개를 통해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것은 서구의 산업화입니다. 서구의 산업화가 일종의 지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종의 농업 사회였고, 지금 19세기에 서구 세계의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가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맙게도 그들은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종교는 그들에게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지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도시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구의 산업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 서구의 요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영역을 이해하지 않고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분리와 소외,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 그리고 따라서 종교의 소외,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화.

이 필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산업 일자리 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함께 산업은 이제 우리가 통제합니다.

우리는 신이 자연 세계와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경 생활에서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19세기 영국의 산업 도시와 같은 거대한 산업 도시로 이사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은 상품을 생산하고, 사람들은

상품을 사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교회는 19세기에 이런 거대한 산업, 서구 산업 도시에서 정말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농업 사회에서 이전에 알았던 신에 대한 의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황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교과과정 14페이지에 있다면, 19세기 교황청이고, 우리는 두 명의 교황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교황 비오 9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교황 레오 13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두 교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교황 비오 9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교황 비오 9세이고, 오른쪽이 교황 레오 13세인데, 교황 비오 9세는 1846년부터 1878년까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으로서 매우, 매우 오랜 시간, 교황직에 있었던 매우 오랜 시간. 좋아요, 이제 만화를 언급하고 싶은데, 만화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볼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도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멋진 만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걸 봤는데, 두 장의 사진만 있는 만화였어요. 왼쪽 사진은 막대기 인형이었고, 교황 비오 9세의 사진이었는데, 창문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큰 창문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창문 커튼을 닫는 모습이었어요. 교황 비오 9세의 교황직을 암시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세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커튼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교황직의 특징이 되었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그의 교황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바로 옆의 사진은 교황 레오 13세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같은 창문 앞에 서 있지만, 그가 교황이 되면, 우리는 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의 낱자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따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금 그의 낱자를 줄 것입니다.

그는 교황 비오 9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1878년에 교황이 되었을 때, 그는 같은 창문 앞에 서서 커튼을 걷어내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관련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황을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비오 9세는 세상의 커튼을 닫고, 레오 13세는 세상의 커튼을 엽니다. 이 두 교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황 비오 9세에 대해 몇 분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제, 제가 읽은 멋진 문단이 있는데, 메모해 두었으니, 문단을 읽어 볼게요. 짧은 문단이지만, 이 글이 훌륭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교황 비오 9세의 중심 과제는 많은 비기독교 및 반기독교 철학 또는 사회 운동과 구별되는 독실한 가톨릭 신앙과 실천을 식별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훌륭한... 사실, 그것은 단지 한 문장일 뿐입니다. 네, 단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그의 교황직을 특징짓는 것이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교황으로서 그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교회 사람들의 로마 가톨릭적 삶을 식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비기독교적 운동과 사회적 운동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운동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황 비오 9세에게 가톨릭 교회가 교회였다고만 말해야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나 동방 정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이 운동들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제, 그의 목표, 그의 사명을 식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이런 운동에 맞서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회복합니다. 이제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종류의 교회의 적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천 년 동안 매우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 년 이상 동안, 로마 가톨릭교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시민 지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19세기에 와보죠. 교황 비오 9세는 천 년이나 120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고, 왜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는 교회의 적 4명, 사회적 적 4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주의입니다. 글썄요, 자유주의는 교황 비오 9세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더 자유로운 사회였고, 19세기에 더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는 분명히 교황 비오 9세에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에 부상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18세기 미국 혁명 당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집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을 보았습니다.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정신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글썄요, 민주주의 정신은 교황청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청은 민주주의 기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일적 계층적 기제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의 부상, 철학의 부상, 정신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등을 판단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합리주의에서 부상했거나, 다른 말로 하면 17세기와 18세기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의 부상입니다. 완전히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영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신비를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신비를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신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합리성에 따라 엄격하게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합리주의입니다. 좋아요, 네 번째는 반성직주의입니다. 19 세기에 있었던 반성직주의적 분위기로, 물론 교황청, 사제직,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성 직주의는 19세기에 들어와 꽤 강해졌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네 가지 세력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합리주의, 반성 직주의 . 그리고 그 네 가지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죠. 다른 권위자들도 느꼈지만, 로마 가톨릭 권위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황청에서 시작되어 교황청을 적절한 사무실이자 교회를 운영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위계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교황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무슨 권리로 교황을 두는가? 등등. 그래서 그것은 개신교의 다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주주의 운동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어떤 것도 최고위의 교황이 쇼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언급한 18세기 철학자들 중 일부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성직자에게든 매우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발견하든 제도적 교회에 매우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로 가톨릭 교회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소외돼요.

교회가 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가 이에 대해 한 일은 교황 비오 9세가 19세기에 매우, 매우 강력한 운동을 세웠고, 그 운동은 울트라몬타니즘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록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울트라몬타니즘. 울트라몬타니즘은 문자 그대로 산 너머를 뜻합니다.

사실, 여기 산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산이 있어요.

산 너머. 그럼, 울트라몬타니즘은 무슨 뜻인가요? 산 너머는 무슨 뜻인가요? 즉, 서유럽 사람들은 산 너머 로마와 교황청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진짜 교회를 보고 싶다면 로마를 보고 교황청을 보세요.

울트라몬타니즘은 정의를 내리자면 교황청에 충성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충성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 모교회에 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맞서기 위해 그는 울트라몬타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울트라몬타니즘은 창문의 커튼을 닫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교회를 내부에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초월주의(ultramontanism)를 식별하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언급할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그가 교황이 된 시점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지금 교리는 1854년에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리에 대해 강의 후반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할 일은 마리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경건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교황청과 로마 교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또한 마리아와 교회 생활에서 마리아의 중요성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마리아의 중요성을 더 많이 지지할수록 교황청과 더 많이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이러한 초월주의, 교황청에 대한 충성을 확립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져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한 두 번째 일은 많은 시성식을 확립하고, 많은 성인을 시성하고, 교회에 많은 성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월주의(ultramontanism)를 확립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시성식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황청이 이 성인들을 시성할 수 있는 힘을 볼 수 있게 했고,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풍부한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에 얼마나 시달리든,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가 이런 초교파주의, 시성, 교회 내 성인의 확립, 교회 내 성인의 명명을 발전시킨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19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지만, 개신교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세기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다. 세 번째 방법은 교황 비오 9세가 세운 위대한 선교 사업이다. 선교사를 파견하라.

그리고 그 선교사들 중 가장 위에 있는, 글썄요, 확실히 가장 활동적인 그룹 중 하나는 예수회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을 파견하세요. 이 선교사들은 또한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기독교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신론주의의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방법이며, 정말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면, 20세기에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경건함, 위대한 기도, 신, 그리스도, 마리아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건함의 모범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함의 모범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많은 역경 속에서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깐만 빨리 넘어가면 요한 바오로 2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기억하시죠? 테드와 저는 요한 바오로 2세를 기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요한 바오로 2세를 아주, 조금 기억하시나요? 네. 알겠어요.

글쎄요, 그는 매우 독실한 사람이었고, 눈에 띄게 독실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매우 독신했고, 등등. 그러니까, 글쎄요, 독실한, 아홉 번째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델과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매우 중요했고 우리가 조금 후에 언급하겠지만, 그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소집했고, 제가 그냥 보도록 하죠.

내려놓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는 제2차 바티칸 협의회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이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바티칸 공의회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는 이 공의회를 소집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항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이도록 이 공의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회를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개의 공의회를 보았습니다. 트レント 공의회, 종교 개혁 후 공의회를 기억하세요.

기억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그는 공의회를 소집했고, 우리는 그 공의회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할 것입니다.

좋아요. 또 다른 것. 이제, 이건 초월주의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압력과 적들에 대항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또 다른 교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의 무오성이라고 불렸습니다, 1870년.

비오 9세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바티칸 공의회에서 마침내 확인되었지만, 교황의 무오성. 이제, 우리가 교황의 무오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교황청에 많은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당신은 언어만으로도 교황의 무오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아요. 그가 이 초월주의(ultramontanism)를 확립하기 위해 한 또 다른 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주, 다른 장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 그는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를 재설립한 교황입니다. 옥스포드 운동에서 영국에서 이런 종류의 위계 재설립이 있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글썄요, 그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황이었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강화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힘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영국과 다른 주들과 같은 주들과 대화하고 거기에 위계를 확립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비오 9세입니다.

그는 세상의 커튼을 닫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커튼이 닫힌 창문에 등을 돌리고, 교회만 바라보며, 울트라몬타니즘이라는 운동으로 교회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레오 13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비오 9세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정말, 정말 중요한 교황님.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럼, 피우스 9세, 당신은 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레오 13세로 돌아가 봅시다. 레오 13세는 오른쪽에 있고, 그는 1878년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교황이었던 비오 9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창문으로 가서 창문 커튼을 엽니다.

그는 교회가 그 창 밖의 세상과 관련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관련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사는 세상에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피우스 9세와 정반대였습니다. 교황청에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그를 교황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피우스 9세가 커튼을 닫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그저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교황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고, 레오 13세와 함께 다른 것을 얻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세계와 타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가 어떻게 현대 세계와 타협하는가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저는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성직자, 목사, 사제, 그리고 복음의 목사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적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비오 9세 때 일어났던 반성 직주의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 목사, 사제들이 자신이 처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교황 레오 13세 자신이 교황의 무오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황의 교리의 무오성이 개신교도들을 박탈하고 동방 정교회를 박탈하고 매우 중요한 몇몇 가톨릭 지도자들을 박탈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오 13세는 이 교리가 교회를 돕는 것보다 교회를 더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커지고 있던 이 반성 직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했지만, 교황의 무오설이 공표되었고, 그것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는 현재 진행 중인 반성 직주의 를 극복 하고 교회를 더 나은, 더 적절한 방식으로 이끌고 싶어합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잘한 두 번째 일은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오 9세는 그것에 대해 약간 노력했지만, 외교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오 9세가 한 일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오 13세에 대한 긴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레오 13세는 교회가 이전에 소유했던 땅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교황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에 매우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유일한 교황령은 바티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바티칸뿐이었습니다. 중세 세계의 교황 국가와 교황청이 중세 세계에서 소유했던 서유럽의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레오 13세는 어떤 책에서 그를 바티칸의 포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티칸에 가본 사람이 있나요? 로마에 가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바티칸에 가고 싶습니다.

같이 바티칸으로 여행을 가서 바티칸을 구경하자. 글썄, 바티칸은 꽤 작다. 이걸 찾아봐야겠다.

내가 강의하는 동안 누군가 이걸 찾아볼지도 모르지만, 100에이커 정도일 것 같아요. 꽤 작지만 독립 국가예요. 알고 계셨나요? 바티칸이 독립 국가, 독립 국가라는 걸 알고 계셨죠?

로마 시에 있지만, 바티칸으로 건너가면 다른 주에 있는 셈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몇 개나? 109에이커.

109에이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 몇 백 에이커에 앉아 있지만, 중앙 캠퍼스는 아마 100에이커일 거예요.

그래서 고든 칼리지만큼 크지만, 그것은 주입니다. 자체 경찰이 있고, 자체 우체국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의 주지사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약간 실망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이 국가에서 다른 국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을 보내나요? 바티칸에 가는 외교관이 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 없나요? 외교관이 있나요? 바티칸과 외교관을 교환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외교관 중 한 명은 보스턴의 전 시장인 플린 시장입니다. 그는 시장이 된 후 외교관이 되었고, 바티칸 대사가 되었습니다.

네, 바티칸에 대사가 있고, 워싱턴에도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교환하죠. 하지만 네, 알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바티칸 페이지에 있으니까 잠깐 느낌이 오는데, 제 추측으로는 4,000, 3,000, 4,000, 5,000 정도일 거예요.

매일 바티칸에는 엄청난 수의 방문객이 옵니다. 790. 알겠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클 줄 알았어요. 798.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고든 칼리지 학생 수의 절반입니다. 798명.

어머, 난 2, 3, 000이나 4, 000이라고 생각했어. 알겠어. 여기 있잖아.

그리고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죠? 말해 보세요. 이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죠? 스위스 경비병들이 바티칸을 지키죠.

그들은 누가 만든 제복을 입고 바티칸을 지키고 있나요? 제복이 이상해요. 제복을 찾아보실 거라는 건 알지만, 제복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스위스 경비대의 제복을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제복을 디자인했어요.

네, 흥미롭네요. 저는 바티칸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지역에는 가봤고, 성 베드로 교회도 가봤고, 뭐든 다 가봤어요. 어쨌든 레오 13세에게 일어난 일은 교황청이 예전처럼 자신의 나라로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거야 . 우리가 소유한 거야. 우리 주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이 모든 외교 관계 등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레오 13세에 대한 또 다른 점은, 그것이 그의, 그의 다른 공헌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큰 공헌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다른 일들, 우리가 언급한 것들은 꽤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가 어떤 의미에서 접촉하고 싶어했던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레오 13세가 로마 가톨릭 신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하여 성경과 경전이 교황과 사제들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있기를 원했고, 성경에 대한 해석 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경을 공개했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바티칸 기록 보관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바티칸 기록 보관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는 바티칸 기록 보관소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사람들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가본 적이 없지만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가려면 학자가 되어야 하고, 꽤 높은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티칸 기록 보관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성공회 교회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성공회에 *Ad Anglos to the Anglicans*라는 교황 서한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황 비오 9세는 성공회에 관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창문의 커튼을 닫고 성공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커튼을 열고 성공회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가장 가까운 성공회와 공통점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교리적 신학 그룹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레오 13세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성공회 사제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성공회 사제들을 서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성공회 사제들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성공회 사제들이 결혼한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일어났지만, 그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는 실제로 성공회에 손을 내밀고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회에 보낸 편지, Ad Anglos는 레오 13세의 중요한 편지로, 그가 손을 내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을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으로서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커튼을 닫음으로써, 비오 9세는 서구의 산업화의 파괴적인 측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빈곤, 사람들의 끔찍한 노동 조건, 사람들의 노동 조건, 그리고 아이들이 공장 시스템에 투입되는 것 등을 무시했습니다. 긴 근무 시간, 적은 임금, 그리고 모든 것. 커튼을 닫은 채 바티칸에 살던 비오 9세는 산업화의 문제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레오 13세가 한 가장 큰 공헌은 커튼을 열고 산업 서구의 문제와 산업화가 야기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노동 계층을 돌보고, 이 주요 대도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일에 관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아무 상관 없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두 뉴욕에 가보셨나요? 뉴욕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뉴욕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뉴욕으로 여행을 가야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모두 뉴욕에 가보셨죠. 글썄요, 다음에 뉴욕에 갈 때 꼭 봐야 할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와는 아무 상관 없지만, 어쨌든 꼭 봐야 할 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Lower East Side Tenement Museum이에요.

그거 봤어? 가봤어? 대단하지 않아? 정말 대단해, 다시 가볼게. 로어 이스트 사이드 테너먼트 박물관이야. 뉴욕에 있을 때 꼭 들러야 해. 19세기와 20세기 초, 어쩌면 1930년대쯤까지 뉴욕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거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Lower East Side에 몰려와서 공장에서 이런 끔찍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장에서 일했고, 사람들은 집에서 일했고, Lower East Side Tenement Museum은 산업화로 인해 세기가 바뀌던 뉴욕의 Lower East Side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가족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임대 주택 중 일부를 인수해서 거의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투어가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번 투어를 했습니다. 모든 투어를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내와 저는 일하는 유대인 가족의 한 번 투어를 했습니다. 그들은 4층쯤에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이 세 개 있었습니다.

4~5인 가족이었어요. 게다가 낮에는 노동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옷을 꿰매는 일을 도와야 했어요. 변기는 지하에 있고, 지하에는 흐르는 물이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는 난방이 거의 없어요.

19세기와 세기의 전환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일했는지 보는 건 정말 잔인해요. 그저 그에 대한 비전을 얻기 위해서요. Lower East Side Tenement Museum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 Ruth,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이걸 보면 계속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가족들은 괜찮게 만들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범죄와 악덕이요. 하지만 그게 레오 13세가 원했던 사역이에요.

그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산업 서방에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는 레오 13세의 글이고, Rerum Novarum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유명한 회칙, 새로운 것, 새로운 질서, 그리고 레룸 노바룸입니다. 그러니 19세기를 공부할 때, 그가 1903년까지 교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에 있었지만, 19세기를 공부할 때, 당신은 레룸 노바룸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Rerum Novarum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측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돌아오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뉴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쁜 시간이겠지만,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님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18번째 세션인 19세기 가톨릭교입니다.